

김해 구산동 지식묘 관광자원화 및 브랜딩 전략

최 나 리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lucky@ghri.re.kr

- I. 왜 김해 지식묘인가
- II. 김해 지식묘의 가치와 활용 과제
- III.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IV. 김해형 관광자원화 및 브랜딩 전략
- V. 정책 제언



I. 왜 김해 지석묘인가

1. 도시 브랜드의 외연 확장

- 김해시는 대성동고분군, 수로왕릉, 봉황동 유적 등 가야 유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왔음. 특히 대성동고분군은 가야고분군의 구성 유산으로서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김해 역사문화자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가야고분군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포함한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고대 가야문명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김해의 역사적 정체성은 가야에만 한정되지 않음.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가야 이전 김해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 거석유산이자, 선사에서 역사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장례문화와 지역 권력 형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임. 특히 대형 덮개 돌과 장방형 묘역 구조는 당시 지역 공동체가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조직과 의례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로 평가됨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28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분류상 '유적건조물/무덤/무덤/지석묘'에 해당함. 수량 및 면적은 1기, 4,660.1m²이며, 지정일은 2012년 7월 19일임. 또한 국가유산포털은 구산동 지석묘를 길이 약 10m, 너비 약 4.5m, 높이 약 3.5m, 무게 약 350t 규모의 상석과 약 85m 규모의 장방형 부석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석묘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구산동 지석묘는 김해가 단순히 가야의 도시를 넘어, 선사와 고대가 중첩된 장기 지속의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상징 자산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김해의 역사관광 서사를 선사문화-가야문화-현대도시로 연결할 경우, 김해는 단일 시대의 역사도시가 아니라 시간의 층위를 품은 복합 문명 공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

2. 김해 지식묘 현황과 정책적 의미

- 현재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김해시 지식묘 관련 자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지식묘 자원임. 현재 국가유산포털 기준으로 김해시에는 구산동 지식묘, 무계리 지식묘 등을 포함한 지식묘 유산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서상동·내동 일대에도 관련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 이들 유산은 김해가 가야 이전부터 거석문화와 장례의례가 형성된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선사문화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김해관광포털에서 관광·체험 자원으로 안내되고 있는 지식묘 관련 자원임. 현재 김해관광포털에서는 구산동 지식묘, 내동 지식묘, 무계리 지식묘, 서상동 지식묘, 율하유적공원 등을 선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소개하고 있음. 이는 지식묘가 단순한 고고학 유산을 넘어 관광·교육·체험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셋째, 율하리 유적과 율하유적공원은 단일 지식묘 유산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주거지·분묘·지식묘가 함께 확인된 복합 선사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김해시 발굴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해 율하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분묘 107기, 주거지 52기, 수혈 31기, 굴립주 건물지 7기, 구상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일부 청동기시대 분묘는 현장 보존되거나 율하유적공원으로 이전 복원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김해관광포털). 이는 김해가 단순히 개별 지식묘 몇 기가 존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사시대 생활·장례·의례가 복합적으로 전개된 중요한 생활문화권이었다는 점을 보여줌
- 이러한 점에서 김해 지식묘 자원의 정책적 의미는 단순한 고인돌 보존에 머무르지 않음. 구산동 지식묘를 중심으로 무계리·내동·서상동·율하리 유적 등을 연결할 경우, 김해는 선사문화와 가야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복합 역사문화도시로 관광 서사를 확장할 수 있음. 즉, 지식묘는 가야유산을 보완하는 부가적 자원이 아니라, 김해 역사문화 정체성의 시간적 깊이를 확장하는 핵심 기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표 1-1> 김해시 주요 지석묘·선사유산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지정·관리 현황	주요 특징
1	김해 구산동 지석묘	구산동 1079	경상남도 기념물 제280호 2012.7.19 지정, 1기, 4,660.1m ²	덧개돌 길이 약 10m, 너비 약 4.5m, 무게 약 350~400톤. 기단 석렬은 남북 방향 길이 약 85m, 너비 약 19m 규모. 덧개돌 아래에서 널무덤, 단지 1점, 두형토기 1점 확인
2	김해 무계리 지석묘	무계동 366-3 및 367-2	경상남도 기념물 제151호 1996.3.21 지정, 1기, 324m ²	덧개돌 길이 6.1m, 너비 2.9m, 두께 1.3m. 현재까지 직접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근 지석묘 출토 유물 등을 통해 청동기시대 후반 조성으로 추정
3	김해 내동 지석묘	금관대로1265번길 4-1	경상남도 기념물 제97호 1990.12.20 지정, 1기, 212m ²	도심부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지석묘. 김해 도심 선사유산 해설 거점으로 활용 가능
4	김해 서상동 지석묘	가락로 108-17	경상남도 기념물 제4호 1974.2.16 지정, 1기, 126m ²	덧개돌 길이 약 4.6m, 너비 약 2.6m, 두께 1.15~1.4m 규모. 김해 중심부 주거지 내에 위치한 도심형 지석묘
5	울하리 유적·울하유적공원	울하동 일원	미지정, 일부 현장보존, 이전복원	청동기시대 주거지·분묘·지석묘가 함께 확인된 복합 선사유적. 구산동 지석묘와 연계해 장유권 선사유산 코스로 활용 가능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김해관광포털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산동 지석묘와 무계리 지석묘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인 기념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내동·서상동 지석묘는 김해관광포털 등을 통해 지역 선사문화자원으로 안내되고 있음. 또한 울하유적공원은 청동기시대 주거지·분묘·지석묘 등이 함께 확인된 복합 선사유적을 기반으로 조성된 발굴·보존·전시형 역사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 현재 공개자료 기준 김해시에는 구산동 지석묘를 비롯해 무계리·내동·서상동 지석묘와 울하리 일대 선사유적 등 다양한 선사시대 거석 및 생활문화 유산이 분포하고 있음. 특히 구산동

지석묘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28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길이 약 10m, 너비 약 4.5m, 무게 약 350t 규모의 상석과 약 85m 규모의 장방형 묘역 구조를 근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석묘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김해시 관광안내자료와 일부 언론·학술자료에서는 이러한 규모를 바탕으로 비공식 세계최대급 규모의 거석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김해 지석묘 관광자원화는 구산동 지석묘를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되, 무계리·내동·서상동·울하리 등 김해 전역에 분포한 선사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형 선사문화 네트워크 전략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개별 유적 관람 중심의 단선형 관광구조를 넘어, 김해 전체를 선사와 가야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인식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3. 포스트 가야고분군 시대의 새로운 관광동력

-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김해 역사관광의 핵심 과제는 세계유산의 상징성과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방문 동기와 체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음. 즉, 세계유산 등재 자체가 정책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후 김해 역사관광의 외연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구산동 지석묘는 가야 중심의 역사관광 서사를 보완하고 시간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음. 구산동 지석묘는 단순한 선사시대 무덤이 아니라, 대규모 덮개돌과 장방형 묘역 구조를 통해 당시 지역 공동체의 동원력, 장례의례, 사회 조직과 상징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거석유산임. 특히 청동기 시대 유산이라는 점에서, 김해의 역사적 시간축을 가야 이전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를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지석묘로 설명하고 있으며, 길이 약 10m, 너비 약 4.5m, 무게 약 350t으로 추정되는 상석과 약 85m 규모의 장방형 묘역시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김해시 관광안내자료와 일부 언론·학술자료에서는 이러한 규모와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급 규모의 거석 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구산동 지석묘가 단순한 지역 유적을 넘어, 국내외적

으로도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구산동 지석묘는 가야유산 중심의 기존 역사관광 구조를 보완하면서, 선사-가야-현대를 연결하는 김해형 역사문화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차세대 관광동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4. 구산동 지석묘 개장의 의미

- 2026년 3월 구산동 지석묘 전면 개장은 김해 지석묘의 정책적 위상과 활용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면 개방하였음. 김해시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유적 훼손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이후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의 허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복원 정비계획이 추진되었고, 2025년 8월 공사 착수 이후 2026년 3월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이 과정은 두 가지 정책적 의미를 가짐
- 첫째, 문화유산 관리에서 보존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임. 구산동 지석묘는 단순한 공원 정비사업이 아니라 국가유산 관리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용 과정에서도 학술 검증과 보존 기준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함
- 둘째, 복원 이후에는 유적을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학습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함. 즉, 역사공원 개방은 단순한 물리적 개방이 아니라, 김해 선사유산을 시민 일상과 관광자원 속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에는 단순 관람 중심 공간을 넘어 해설·교육·디지털 콘텐츠·체험 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복합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산동 지석묘는 '보존된 유적'에서 '활용되는 역사문화 자산'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I. 김해 지식묘의 가치와 활용 과제

1. 규모와 구조의 특수성

- 김해 구산동 지식묘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규모와 구조적 상징성에 있음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구산동 지식묘를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지식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길이 약 10m, 너비 약 4.5m, 높이 약 3.5m, 무게 약 350t으로 추정 되는 대형 덮개돌과 약 85m 규모의 장방형 기단 석렬 구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 또한 김해관광포털은 덮개돌 아래에서 널무덤과 단지 1점, 두형토기 1점 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규모와 구조는 단순한 거석유산을 넘어, 당시 지역 공동체가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조직과 의례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로 평가됨. 특히 구산동 지식묘는 단일 상석 규모뿐만 아니라 장방형 묘역시설이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인돌 유적과 차별성을 가짐
- 관광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규모감은 높은 잠재력을 지님. 선사유산은 일반 관광객에게 다소 추상적이고 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구산동 지식묘는 대형 거석 자체가 강한 시각적 인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 또한 김해 도심 및 연지공원과 인접한 입지 조건은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함

2. 보존과 활용 사이의 정책 과제

- 구산동 지식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활용 과정에서 국가유산 보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2022년 정비 과정에서는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 박석 일부를 해체하고 상석 주변부를 중장비로 굴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훼손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바 있음. 이후 국가유산청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재정비 및 복원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026년 3월 지식묘가 전면 개방되었음

- 따라서 향후 활용 전략은 유구 보존, 관람 동선 관리, 안내·해설 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체험 콘텐츠, 야간 경관 연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모든 프로그램은 국가유산 보존 기준과 현장 관리 원칙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3. 김해 지석묘의 활용 여건 진단

- 김해 지석묘의 활용 여건은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짐
- 강점은 첫째, 국가유산청이 국내 최대 규모로 설명하고 있는 구산동 지석묘의 상징성임. 둘째, 구산동·내동·서상동 등 도심부와 무계리·울하리 등 장유권 일대에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 김해 전역에 걸친 선사문화 자원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임. 셋째, 구산동 지석묘 전면 개방 이후 시민 접근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임
- 반면 한계도 존재함. 첫째, 선사유산은 문자기록이나 인물 중심 서사가 부족해 일반 관광객에게 즉각적인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는 점임. 둘째, 구산동 지석묘를 제외하면 개별 지석묘에 대한 인지도와 현장 안내 체계가 제한적이며, 체험·교육 콘텐츠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음. 셋째, 현재까지는 지석묘 자원과 가야유산, 원도심 관광, 가족형 교육관광 코스를 연결하는 통합 관광동선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임
- 결국 김해 지석묘 관광자원화의 핵심은 유산의 존재 자체에 있지 않음. 중요한 것은 이를 시민과 관광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김해의 다른 역사문화자원과 연결하며, 교육·체험·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가능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있음



구산동 지석묘 전경



구산동 지석묘 안내도

III.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1. 해외 사례: 거석문화를 도시 브랜드로 확장한 전략

- 영국 스톤헨지는 거석유산이 세계적 관광 브랜드로 작동하는 대표 사례임. 운영기관인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는 2013년 12월 스톤헨지 방문자센터를 개관하여 방문객이 유적 관람 이전부터 선사문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방문자 센터에는 250점 이상의 고고학 유물 전시, 멀티미디어 해설, 360도 영상 체험, 복원된 신석기시대 가옥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스톤헨지를 단순한 거석 구조물이 아니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기술·의례·경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복합유산으로 해석하고 있음. 스톤헨지는 방문자센터와 유적 현장을 분리 운영하고, 셔틀버스 및 지정 관람 동선을 통해 방문객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유산 보존과 관광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 카르나크(Carnac)의 메종 데 메갈리트(Maison des Mégalithes) 역시 중요한 참고 사례임. 메종 데 메갈리트는 카르나크 열석 유적 관람의 출발점이자 해설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남부 모르비앙 지역의 거석유산 탐방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고, 2018년 전면 리모델링을 거쳤음. 이 시설은 전시·영상·디지털 해설·촉각 모형·서점·기념품숍 등을 통해 관람객이 유적을 보기 이전에 거석문화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또한 카르나크는 주요 열석 유적에 대한 자유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성수기에는 가이드 중심 예약 관람 방식을 운영함으로써 관광 수요와 유산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메종 데 메갈리트(Maison des Mégalithes)



스톤헨지 방문자센터 전시공간

• 자료 :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 및 메종 데 메갈리트(Maison des Mégalithes) 홈페이지

- 두 사례의 공통점은 거석유산의 관광 경쟁력을 단순한 규모나 희소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임. 방문자센터, 사전 해설, 체험 콘텐츠, 관람 동선, 접근 관리, 편의 서비스 등이 결합될 때 거석유산은 '보는 유산'을 넘어 '이해하고 기억하는 유산'으로 전환될 수 있음. 즉, 관광객은 단순히 거대한 돌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이 형성된 시대의 생활상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
- 구산동 지석묘 역시 고인들의 물리적 규모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사시대 공동체의 기술·의례·경관을 해석하는 방문자 경험 설계가 필요함. 특히 김해는 가야유산이라는 기존 역사관광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사와 가야를 연결하는 시간축 기반의 해석 전략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사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 국내에서는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 대표 사례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이들 유적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밀도와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집중된 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함
- 고창 고인돌 유적은 탐방로, 박물관, 해설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등을 결합해 비교적 체계적인 현장 활용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화순과 강화 역시 유적군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과



고창 고인돌박물관 내부



고인돌끌기 체험

• 자료: (좌)연구진, (우)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역사교육 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역축제·탐방 프로그램·문화행사 등을 통해 고인돌 유산을 지역 브랜드와 연결하고 있음

- 이 사례는 김해 지식묘 관광자원화에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함. 첫째, 고인돌은 단순한 고고학 유적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관광·지역브랜드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임. 둘째, 김해는 고창·화순·강화처럼 대규모 군집형 세계유산은 아니지만, 구산동 지식묘라는 상징적 단일 유산과 내동·서상동·무계리·울하리 등 분산된 선사유산 자원을 활용해 도심형 선사유산 관광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임
- 특히 김해는 기존 가야유산과 연계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고창·화순·강화가 고인돌 중심의 단일 역사서사를 기반으로 한다면, 김해는 선사유산과 가야유산을 연결하는 복합 역사관광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이는 김해 역사관광의 시간적 깊이와 도시 브랜드의 외연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IV. 김해형 관광자원화 및 브랜딩 전략

1. 가야 이전의 문명도시 김해 이미지 구축

- 김해형 브랜딩의 핵심은 구산동 지식묘를 개별 유적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김해의 시간적 정체성을 확장하는 상징 자산으로 재위치시키는 데 있음. 지금까지 김해의 대외 이미지는 가야문화권과 가야고분군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구산동 지식묘를 비롯한 선사유산은 김해가 가야 이전부터 인간 활동과 공동체 형성, 장례의례가 이루어진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브랜딩 방향은 기존 가야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야 이전의 문명도시라는 시간축 개념으로 확장하는 방향이어야 함. 즉, 김해를 단순히 가야 왕도의 이미지에 한정하지 않고,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장기간 인간 활동과 문화가 축적된 역사 문화도시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구산동 지석묘, 무계리 지석묘, 내동 지석묘, 서상동 지석묘, 율하유적공원, 대성동 고분군, 봉황동 유적, 수로왕릉을 하나의 시계열형 역사관광 서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는 김해의 역사관광을 개별 유적 중심 구조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도시형 역사관광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2.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살아있는 역사공원 조성

- 구산동 지석묘의 관광자원화는 단순히 보는 유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공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함
- 우선 AR·XR 등 실감기술을 활용해 덮개돌 운반 과정, 묘역 조성 방식, 청동기 시대 의례 장면 등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음. 지석묘는 건축물처럼 내부 공간을 직접 관람하기 어렵고, 유구 보호를 위해 접근과 접촉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해설은 선사유산의 낮은 가시성과 체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
- 둘째, 역사공원 내 해설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문화유산 안내판은 유적의 기본 정보 제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향후에는 '왜 이 돌이 중요한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거대한 돌을 운반했는가', '가야 이전 김해는 어떤 공간이었는가'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는 스토리 기반 해설체계가 필요함. 이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방문객의 이해와 기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셋째, 학교 교육과 연계한 가족형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 하루 체험', '고인돌 축조 원리 실험', '어린이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 등은 역사공원을 교육관광 공간으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특히 가족 단위 체험형 콘텐츠는 김해의 기존 역사 관광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류형 관광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3. 김해 고인돌 해설센터 조성 검토

- 향후 구산동 지석묘는 단순 야외 관람지에 머물기보다, 선사유산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해설

거점을 함께 갖출 필요가 있음

- 가칭 '김해 고인돌 해설센터'는 대규모 박물관보다는 방문자센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임. 이 시설은 방문 전 영상 해설, 축조 원리 모형, 청동기시대 생활·의례 콘텐츠, 어린이 체험 키트, 해설 예약 기능, 교육자료·기념품 제공 등을 결합한 복합 해설 공간으로 구상할 수 있음
- 이는 스톤헨지 방문자센터와 카르나크 메종 데 메갈리트 사례처럼 유적의 보존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람객의 이해도와 체류시간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방문객이 유적을 보기 이전에 선사문화의 의미와 배경을 먼저 이해하게 함으로써, 현장 체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다만 해설센터는 반드시 독립 건축물 신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기존 공원 관리시설, 안내소, 유휴 공공 공간, 이동형 전시 부스 등을 활용한 단계적 조성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

4. 김해 선사유산 네트워크 구축

- 구산동 지석묘 단독 관광은 체류시간 확대와 관광 소비 유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중심으로 다른 선사유산과 가야유산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관광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IV-1> 선사유산 네트워크 코스(안)

유형	코스 구성	주요 타겟
선사문화 입문 코스	구산동 지석묘 - 구지봉 - 서상동 지석묘	시민, 학생, 가족
장유권 선사유산 코스	무계리 지석묘 - 율하유적공원 - 율하유적전시관	가족 관광객, 교육단체
선사-가야 연결 코스	구산동 지석묘 - 대성동고분군 - 봉황동 유적 - 수로왕릉	역사문화 관광객
공향 연계 짧은 체류 코스	김해국제공항 - 구산동 지석묘 - 연지공원 - 원도심	환승 당일 관광객

- 특히 김해관광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는 주요 역사문화자원과의 해설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방문객은 김해를 개별 유적의 집합이 아니라 선사와 고대가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문화 도시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김해 역사관광의 시간적 깊이와 도시 브랜드의 차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은 단순 관광동선 연결을 넘어,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모바일 스탬프 투어, 디지털 지도 서비스, 역사문화 축제 프로그램 등과 연계될 경우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소비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V. 정책 제언

1.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 구산동 지석묘의 관광자원화는 단기 성과 중심 접근보다 단계별 고도화 전략에 기반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개방 자체가 정책의 종착점이 아니라, 향후 김해 선사문화 관광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우선 단기적으로는 구산동 지석묘 전면 개방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기본 안내체계, 해설 문안, 홍보문구, 상설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외 홍보에서는 '세계 최대'와 같은 단정적 표현보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지석묘',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가야 이전 김해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선사 거석유산' 등 학술적 검증 가능성과 정책적 신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기적으로는 AR·XR 기반 체험 콘텐츠, 가족형 교육 프로그램, 선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가칭 '김해 고인돌 해설센터' 조성 검토, 인근 상권과 연계한 소규모 관광상품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구산동 지석묘를 김해의 대표 선사유산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무계리·내동·

서상동·울하리 등 김해 전역의 선사유산과 가야유산을 연결한 통합형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김해를 단순한 가야 역사도시가 아니라, 선사와 고대의 시간 층위가 공존하는 복합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음

<표 V-1>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단계	추진 방향	주요 과제
단기	개방 효과 확산	안내체계 정비, 홍보문구 검증, 상설 해설 운영, 기본 관람 동선 개선
중기	체험·교육 고도화	AR·XR 콘텐츠 구축, 가족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김해 고인돌 해설센터 검토, 연계 관광상품 개발
장기	선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구산동·무계리·내동·서상동·울하리 유적 연계, 가야유산과 통합한 역사관광 브랜드 구축

2.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식묘 관광자원화는 단순한 유산 행정만으로 완결되기 어려움. 국가유산 관리 부서와 관광 부서뿐 아니라, 지역 대학, 박물관, 연구기관,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자,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필요함
- 특히 선사유산은 문자 기록이 부족하고 전문적 해석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학술 검증과 대중적 스토리텔링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임.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체계를 구축할 경우 관광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이나 과장 홍보를 줄이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주민 참여 역시 중요함. 역사공원이 단순히 외부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에 머무를 경우 지속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이 해설 프로그램, 환경 관리, 체험 운영, 로컬 상품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관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운영 전환

- 구산동 지석묘 관광자원화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시설 조성 자체보다 운영의 질에 의해 결정됨. 향후 운영 방향은 유적의 물리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해설·교육·관광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역시 구산동 지석묘에 대해 고인돌의 규모가 국내 최대라는 상징성과 가장 늦은 단계의 고인돌이라는 역사성 등 그 가치와 특징을 역사 자원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는 구산동 지석묘가 단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역사교육과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따라서 김해시는 도슨트, 문화유산 해설사, 로컬 크리에이티브형 콘텐츠 기획자를 연계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톤헨지와 카르나크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거석유산의 방문 만족도는 단순히 유적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현장에서 제공되는 설명, 체험, 관람 동선, 편의 서비스, 사전 해설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방문객의 이해도와 체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
- 결국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정책적 가치는 단순히 '큰 고인돌'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음. 핵심은 가야 이전 김해의 시간성과 역사적 깊이를 시민과 관광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구산동 지석묘를 김해 전역의 선사유산 및 가야유산과 연결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중심으로 한 선사문화 해설체계, 가족형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체험 콘텐츠, 도심 역사관광 코스,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 전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구산동 지석묘는 김해의 역사 문화 브랜드를 가야의 도시에서 선사와 가야가 이어지는 시간의 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 정책을 넘어, 김해의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의 시간적 깊이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

김해정책 BRIEF

- 발행일 : 2026년 5월
- 발행인 : 김재원
- 집필자 : 최나리 김해연구원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발행처 : 김해연구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 연락처 : (055) 344-7700
- 편 집 : 디엠커뮤니케이션

* 김해연구원 집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김해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김해정책 BRIEF

